

# 3대가 잘사는 'K-디즈니 순천'...투자유치 속도낸다

### 올 21개 기업 유치 목표...45곳 참여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설명회 글로벌대학 연계 일자리 창출 애니메이션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박차

'K-디즈니 순천'을 주력 산업으로 내건 순천시 가 올해 21개 기업 유치, 10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투자유치 분위가 조성돼 나갔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순천시는 1년 6개월간 10개 기업을 유치하며 8888억 원 규모 투자를 끌어냈다.

이로 인해 762명의 고용을 창출해냈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열풍을 동력 삼아 '3대가 잘사는 경제'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 애니메이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행

보도 발 빠르다.

지난해 12월에는 웹툰-애니메이션 관련 앵커(선도)기업 관계자 84개 기업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 경제진흥원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같은 달 연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설명회'에는 45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달 7일에는 바이오 관련 3개 기업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순천시는 승주읍 일원을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 거점으로 삼고 이곳에 62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생물전환 GMP(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과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원료 공급, 소

재화, 제품생산에서 유통까지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그린바이오 분야 경제 보폭을 넓힌다.

또 428만㎡(130만평) 규모 신규 산단 5곳을 조성해 미래산업 기지화에 힘을 보탠다.

지난해 유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립장은 차세대발사체 핵심 소부장기업들 22개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순천 해룡-울촌산단 지역업체와 뿌리기업들은 앵커(선도)기업 입주 기대감에 활기를 보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3대가 잘사는 도시를 위해 1000만 소비군 유입으로 경제활황을 일으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으로 3대가 즐기는 K-디즈니 순천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이 지난해 유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립장이 들어설 울촌산단 조성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 기반시설 확충·소득 증대...여수 섬들은 날마다 변신중

### 2027년까지 38곳 섬종합발전사업 올 사업비 47억원 늘어난 186억 유인섬 뱃길 열고 활력증진사업



여수시는 최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모든 유인섬 뱃길을 열었다. 운두도와 감도를 운항하는 섬섬여수 1호. <여수시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9월5일 개최)를 앞두고 여수지역 섬들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주민 삶의 질과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여수시가 올해 확보한 '4차 섬종합발전사업'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원 늘었다.

4차 섬종합발전사업은 여수의 섬 38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된다. 이 기간 투입되는 사업비는 1972억원이다.

대상지에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 지역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2024년도 섬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에 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곳 선정됐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남면 금오도 작포와 삼산면 초도 의성과 대동 등에서는 섬 주민 주도 소득사업과 마을특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10년간 최대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 1단계 사업에 선정된 여수 3곳은 내년까지 섬 1곳당 4억원씩 총사업비 12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남면 안도와 화태도는 올해 1단계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마무리한다.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2단계 사업으로 한 단계 나아가간다.

여수시는 모든 유인섬을 대상으로 뱃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 주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항로가 선정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운두도와 감도를 운항하는 섬섬여수 1호를 필두로, 2호(남면 소두라도와 소횡간도·월전)와 3호(추도와 낭도)가 운항한다.

여수시는 고흥과 경남 고성에서 해당 항로에 투입할 여선을 확보해 신규 항로 운항 준비를 했다.

5개월에 걸쳐 선박 변경 등록과 수리·검사, 선장 안전 교육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7월 말 야간 운항을 시작한 신기-여천 항

로는 월 평균(8-12월) 11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여촌신활력증진 사업'에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 등이 선정돼 3년간 국비 62억원을 포함 총 88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접근하기 어렵고 낙후됐던 섬에 대해 기반시설(SOC) 확충 등 각종 연계사업을 펼쳐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섬 발전과 보존' 그리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 찾아가는 민원 해결사 '빨간 자전거' 운영

### 올해부터 집배원에 이장도 참여

고흥군이 주민 맞춤형 민원을 살피기 위한 제보·신고제도 참여자에 집배원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도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군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2024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의 하나로 '행복 배달 빨간자전거'를 고흥우체국과 추진한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 주민 일상에서 생기는 생활 불편이나 위험 상황을 제보하는 방식이다.

고흥군은 제보를 받고 선제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제보하면 복

지 서비스로 연동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민원서류를 배달해준다.

올해부터는 제보·신고자를 집배원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흥군은 지난 10년간 맨홀 뚜껑-안길 배수로 정비, 난간 설치 등 2400여 건의 민원 해결을 위해 33억원을 투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한 처리로 행정 수요에 큰 만족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배원·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주민 불편 사항은 적극 수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광양시 귀화·중도 입국 자녀 맞춤형 학습 지원

### 다문화가정 정착 돕기 '함께 해-유'

광양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함께 해-유'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6500만원을 확보했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자기 나라로 들어오거나 귀화한 자녀(중도 입국 자녀)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사업비가 쓰인다.

중도 입국 자녀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또는 미흡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한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 상담을 한다.

사업에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최근 6년 이내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광양시가족센터에 내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가족센터 성장지원팀(061-797-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초와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중도 입국 자녀와 또래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 녹동항 4월~11월 매주 토요일 밤 드론쇼

### 지난해 관람객 18만여명 '인기' 버스킹·레이저쇼도 함께 열려

고흥군이 녹동항에서 토요일마다 펼쳐졌던 드론쇼가 올해 색다른 공연을 추가해 군민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드론 기술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및 먹거리를 즐기는 '2024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해 전남군 최초로 매주 토요일 고흥만의 특별한 야간 볼거리 관광 상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스물세번의 녹동항 드론쇼는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구경했으며 150억원의 직·간접적 지역 경제효과로 이어졌다.

드론쇼 공연으로 녹동항과 녹동 바다정원은 고흥 여행길 명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고흥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고흥관광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녹동항 드론쇼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남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긴 여정으로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매 주말 밤마다 다양한 주제와 연출로 펼쳐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 드론쇼가 열린다.

공연 전후로 버스킹 공연과 레이저쇼, 상용화 드론 비행 시연 등 볼거리에 더해 행사장 주변 주차 거리, 푸드트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은 올해도 4월부터 차별화된 드론쇼 공연을 통해 독보적인 야간 관광 특화 콘텐츠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고흥관광 및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 한 농민이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유용 미생물을 받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흙 살리기'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 미생물배양센터 연말까지 400t

구례군은 '친환경 흙 살리기'를 실천하기 위해 유용 미생물 400t을 연중 무상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례군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안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EM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 미생물을 자체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가 4050곳에 390t의 미생물을 공급했다.

이들 미생물은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축사 악취를 줄이는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구례군은 지난해 자동 공급 체계를 만들어 농가

의 호응을 얻었다.

유용 미생물을 무상 공급받으려면 유용 미생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례군 주민이라면 매주 목요일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찾아 유용 미생물을 받아갈 수 있다.

올해 유용 미생물 교육은 25일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61-780-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 흙 살리기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유용 미생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좋은 품질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보성물'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제품 20% 할인

### 24일부터 열흘간 설맞이 행사

보성군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보성물' 특별 할인 행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할인 기간에는 모든 고객이 모든 품목을 2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00-10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복주머니' 행사와 무료 배송 등 혜택이 마련됐다.

보성물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획 선물 꾸러미 '보성물 다(茶多)담다'를 30% 할인 판매한다.

보성물에서는 지역 160여 개 업체의 1100여 개

품목을 만날 수 있다.

1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과 보성녹차, 키위, 꼬막, 녹돈, 울버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성물은 2년 연속 연 4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할인행사는 지역 농가들을 돕고,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고 보성군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